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

서울의료원 플러스+

2014.10
vol.22

발행인 김민기

편집인 최지향

편집주간 지승준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전화 02-2276-7000

홈페이지 www.seoulmc.or.kr

서울의료원 최우수상 수상! 시립병원 혁신사례 발표대회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공동/통합 구매’로 혁신사례 발표

2014년 시립병원 평가 결과보고회 및 혁신사례 발표대회가 지난 8월 29일(금)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렸다. 행사는 총 13개 시립병원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서울

의료원(원장 김민기) 외 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각 병원별 서비스 혁신사례 위주로 발표가 진행됐고, 2부에서는 1부에 진행된 발표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시상 이 있었다. 서울의료원에서는 계약심사팀 조규성 팀장이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공동/통합 구매’를 혁신사례로 발표했으며 7개 기관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문의와 인턴(전공의)이 함께 하는 멘토제 실시

전문의와 인턴 멘토제 실시로 소속감과 근무 만족도 높여



교육연구부(부장 박태환)가 전문의와 인턴 멘토제를 실시한다. 멘토제는 전문의 1명과 전공의 2명을 1:2로 연결하여 진로고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인턴의 소속감과 동료의식, 병원 근무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전문의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멘토제는 지난 9월 3일(수) ‘서울의료원 인턴 멘토제’ 워크숍을 개최함에 따라 본격적인 멘토제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연구부는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멘토의 날’로 지정하여 전문의와 인턴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장암 건강강좌 개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9월 17일(수) 낮 2시부터 4층 대강당에서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강좌는 외과 장용석 과장의 ‘대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시작으로 총 5명의 강사가 약 20~30분씩 강의를 진행했다. 두 번째 강의에 나선 영양팀 진혜원 팀장은 암을 위한 식이요법을 자세히 소개했고,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소화기내과 배준용 과장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대장암의 내시경적 치료’와 관련된 강의를 이어 나갔다. 외과 박상수 과장은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를, 마지막으로 혈액종양내과 오소연 과장은 ‘대장암의 항암 및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했다. 박수민 환자(가명, 60세)는 “강사들이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다.”며 의료진에게 고마움의 뜻을 표했다.

심장 건강을 위한 ‘더 삶 콘서트’ 개최



심혈관센터(센터장 김석연)는 지난 9월 12일(금) 4층 대강당에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더 삶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퇴원 환자의 8.1%가 1년 내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에 착안해 마련됐다.

심혈관센터는 환자 및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딱딱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상과 음악을 접목시킨 자료를 활용했다. 강사로 나선 김석연 심혈관센터장은 △급성심근경색 발생 시 대처법 △돌연사와 급성 심근경색 △심근경색 관리법 등을 주제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김석연 센터장은 “서울의료원의 질환예방 교육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심장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의에 참석한 김인숙 환자(가명, 68세)는 “의사 선생님들은 어려운 영어를 섞어 알아듣기 힘들게 설명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쉽고 재밌게 강의를 진행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2014 행복도시중랑 건강한마당 행사 진료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명에게 무상 틀니지원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9월 16일(화) 오전 10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중랑구청(구청장 나진구)에서 개최한 '2014 행복도시중랑 건강한마당'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구청 앞 광장, 1층 로비,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지역 내 9개 병·의원이 참여하여 각종 진료 제공 및 건강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건강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서울의료원 의료진들은 사전 전화 접수자에 한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및 치과 진료를 진행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0명을 대상으로 무상 틀니 지원을 제공했다. 무상 틀니 지원을 받은 이영호(가명, 75세) 씨는 "평소 이가 불편해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해 속상했는데, 이렇게 무료로 틀니를 해주니 기분이 참 좋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의료원의 공공병원 위상 확인



2014년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목)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소관부서인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후 서울의료원 간부소개 및 현황보고, 간단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후 호스피스 병동을 시작으로 환자안심병동, 응급의료센터, 재활의학센터 등 서울의료원의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현장 라운딩을 진행했다. 라운딩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서울의료원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 시설이 이처럼 훌륭하고, 환자가 이렇게 많을 줄 미처 몰랐다.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으로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신경과 김지은 과장 서울대병원 근신경계 질환 연구 학술상 수상



신경과 김지은 과장이 지난 8월 31일(일) 서울대학교병원 근신경계 질환 연구회에서 제정한 제6회 'SNUH 근신경계 질환 연구 학술상'을 수상했다. 연구과제는 '루게릭병 실험모델에서 glycogen synthase kinase 억제제 투여 시 extrinsic apoptosis 조절에 따른 신경 보호적 효과분석'으로써 최근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인해 많이 알려진 루게릭병에 관련된 내용이다.

본 상은 근신경계 질환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지은 과장의 연구 성과는 물론, 서울의료원의 높은 진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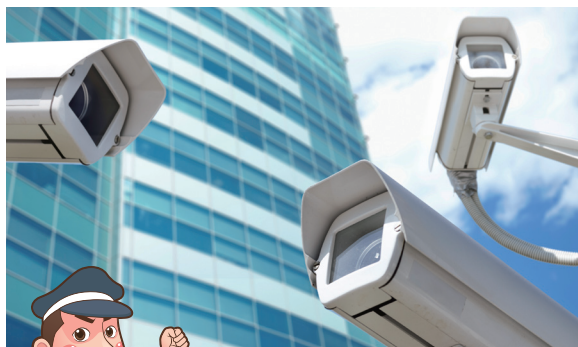
환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폰콜 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함께 진료 동행



공공의료팀(팀장 최재필)에서는 자원봉사자 호출서비스인 '폰콜 서비스'를 10월 초부터 시범운영한다.

폰콜 서비스란 자원 봉사자가 병원에 혼자 내원한 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진료 시 이동이 어려운 환자와 함께 동행하여 각종 검사 및 수납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용을 원하는 환자는 1층에 있는 중앙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한 병원 안전한 직장

CCTV 감시, 출입통제 시간 설정, 합동 순찰 실시

서울의료원은 고객 및 내부직원의 안전한 병원 생활을 위해 10월 1일(수)부터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음주 상태로 내원하는 등의 환자로 인해 타 환자들의 정상적인 진료가 방해받거나 직원들이 위협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다.

먼저 방재센터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CCTV 감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출입통제 시간을 설정하여(22:00~06:00) 현장에서 직접 통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당직과 간호당직, 보안요원이 합동 순찰을 실시하여 병원 내·외부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처리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해요 천 원의 희망나눔

서울 시내 저소득가정의 생계지원비와
아동 교육비에 전액 사용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주최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천원의 희망나눔' 행사가 9월 18일(목)부터 10월 31일(금)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모금액은 서울 시내 저소득가정의 생계지원비 및 아동 교육비에 전액 사용된다. 참여 방법은 **서울의료원 인트라넷 공지사항에서 '모금 CMS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부서별로 취합하여 총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매월 약정금액(1,000원 단위)과 약정 기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된 개인계좌에서 자동으로 약정금액이 출금된다.



수습 기간 끝! 신규 간호사 3인 특집 인터뷰

“마음을 담아 환자와 소통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부터 42병동으로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 성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의료원에 지원한 동기는 늘 필요한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저의 생각이 서울의료원과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저에게 많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늘 신경써주시는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과 동기들, 파트장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고 서울의료원에 입사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아

병동에서 환자분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분들과 동료 간호사들에게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입사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이라는 병원 비전에 맞게 마음을 담아 환자와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간호사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2병동 성민주 간호사

“잘 부탁드립니다. 햇병아리 간호사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부터 91병동으로 발령받은 신규 간호사 김유정입니다.

2014년 6월 2일(월)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되었고 저는 내과 병동인 91병동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병동에 올라가 파트장님과 책임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 뵈고 나니 '정말 서울의료원의 일원이 되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걸음마를 댄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 가지 모두 다 배워야 하는 저에게 꼼꼼히 하나하나 알려주신 프리셉터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독여주시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잘한다고 격려해주시는 파트장님, 책임 간호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저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아직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이미 반은 지나 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서울의료원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간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1병동 김유정 간호사

“시민의 병원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에 입사한 응급센터 신규 간호사 이미화입니다.

응급센터에는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경찰, 보안요원, 기사님과 원무팀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모여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울의료원 응급센터팀은 제가 생각하는 '함께하는 간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제게도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제 자리는 응급센터 바로 문 앞. 환자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모니터 옆 거울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몸은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죠. 하루에도 수 십대의 구급차가 오가고 입실과 퇴실을 기록합니다. 각오했던 시작이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서툴고 부족함에 혼돈 많이 나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매일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만 더. 어느새 제 마음속 주문이 되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닌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마음과 앞서 끌어주고 뒤에서 받쳐주는 응급센터 식구들의 든든함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멋진 간호사가 되어달라는 한 선생님의 말처럼 환자를 돌보는 기본업무에도 충실하며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겠습니다.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료들과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민의 병원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입니다.



응급센터 이미화 간호사

신내2동 통장 무료 건강상담 실시



고혈압, 당뇨 질환 검사와 일반적인 건강상담 진행

간호부(부장 이인덕)는 지난 8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신내2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37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주요 검진 내용은 간단한 검사로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었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건강상담도 진행했다.



세월호 실종자를 찾는 수색대원들의 건강 기원 진도 팽목항으로 응급의학과 박상현 과장 파견

잠수병 등 급성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색대원들 진료

서울의료원은 세월호 사건 실종자 수색으로 밤낮없이 노력하는 수색대원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지난 9월 1일(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으로 응급의학과 박상현 과장을 파견했다. 박상현 과장은 바지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고, 잠수병 등 급성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색대원들에 대한 진료를 진행했다.

✈ 학회와 연수

9.3~9.9	공민호	'World Congresson Neuro Therapeutics Dilemmas, Debates, Discussions' 발표	스위스
9.5~9.11	김혜옥	ERS(European Respiratory Society) International Congress 참석	독일
9.6~9.14	이동훈	Symposium Neuroradiologicum 전시 발표	터키
9.7~9.14	장세연	ASNO 2014 아시아 뇌종양 학회 포스트 발표	터키
9.9~9.13	김현정	ESDR(European Society for Dermatological Research) 포스터 발표	덴마크
9.13~9.21	김정환	32차 플라트 컨퍼런스 및 제69차 미국수부외과 학회 참석	미국
9.24~10.1	오소연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포스터 발표	스페인
9.24~10.2	조동희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포스터 발표	스페인

🌻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09.01 정혜영 교육연구부	09.01 김정만 교육연구부	09.01 이한나 교육연구부
09.01 조성률 공공의료팀	09.01 김세영 병동간호팀	09.01 송호근 병동간호팀
09.01 시현지 병동간호팀	09.01 노미경 병동간호팀	09.01 이란영 식당
09.01 전보람 약제팀	09.01 최은혜2 응급센터	09.01 최지혜 외래간호팀
09.01 김가을 정신건강의학과	09.01 오경미 진단검사의학과	09.01 김미미 특수간호팀
09.11 서범일 병동간호팀	09.11 김옥한 병동간호팀	09.11 유영희 식당
09.15 정준용 영상학과	09.16 서수정 외래간호팀	09.16 김준수 응급센터
09.18 고현정 의무기록팀	09.18 이예송 약제팀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09.11 김하린 병동간호팀
09.11 송재근 외래간호팀
09.15 윤다원 병동간호팀
09.22 김준수 응급센터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09.13 박예리 간호부
09.13 한정규 의료정보팀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한 의료지원 실시

동부병원 소식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경일)은 지난 6월부터 ‘학대 피해 노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의 힘으로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진행해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중 현장 조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된 학대 사례는 3,520건으로, 2005년 이후 약 10년 동안 72.7%나 증가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가족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받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유기를 당하는 학대 노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먼저 동부병원으로 내원해 진료 후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료비 지원 및 지역 기관과의 연계가 이뤄지게 된다.

‘학대 피해 노인 의료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계속되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지역사업팀 의료사회복지사(02-920-9353)에게 문의하면 된다.

‘힐링농업 체험학습 프로그램’ 시범운영

서울시 소식



서울특별시는 강서구와 협력, 과해동에 약 21,385㎡ 규모의 ‘힐링체험농원’을 조성하고 9월부터 어린이 1,500명을 대상으로 ‘힐링농업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진행 하에 다양한 테마농원에서 ‘농촌자연 생활체험’, ‘서울 브랜드 농작물 생산체험’, ‘녹색식생활(비만클리닉)체험’ 등을 하게 된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9월 16일(화)부터 10월 30일(목) 사이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강서구 과해동 소재의 힐링체험농원에서 서울 시내 유치원 및 초·중등학생 단체(1회 40명)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3시간 내외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9월 2일(화)부터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예약메뉴에서 신청한 후, 참여 신청서를 이메일(pepero1122@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참여 신청서는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